

날짜 2022-12-11(D1) 본문 출16:21-24
번호 2351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122, '참 반가운 성도여'

‘안식일을 위한 준비’

시작 주기도
찬송 찬122, ‘참 반가운 성도여’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출16:21-24
찬송 찬123, ‘저 들 밖에 한밤중에’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지방회 탈회(脫會)** 지난 9일(금), 새대전 지방회 2022년도 총회에 참석, 정식 탈회 인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스페덴보리를 하게 되어 떠나지만 한 주님 안에 한 사랑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헤어졌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자는 회장님과 모두의 인사 있었습니다.
- ② **변주연 첫 돌 감사예배** 변우석-윤지원 가정 변주연의 첫 돌 기념, 오는 16일(금) 저녁 7시 감사예배 있습니다. 잘 자라준 주연이와, 특히 주님이 맡기신 생명 돌봄의 귀한 모범을 헌신적으로 보여준 아빠 변우석, 엄마 윤지원, 두 분의 사랑과 수고에 진심으로 큰 박수 보내며,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헌금기도, 축도

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¹¹여호와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피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1절로 24절을 본문으로, ‘안식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거듭 ‘만나’의 영적 의미, 곧 만나란 ‘진리의 선’, 즉 그 안에 선을 동반한 진리이며, 그러므로 곧 주님 자신을 말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저 지식에 머무르는 진리가 아니라 그걸 실천, 또는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하시며, 그래서 이런 진리야말로 살아있는 참 진리이고, 이런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또 ‘안식일’의 영적 의미, 곧 안식일이란 ‘선과 진리의 결합’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육 일간으로 상징되는 거듭남의 과정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아 일상 가운데서 악과 거짓에 대한 싸움을 싸우며 성장하다가 이제 그 끝에 이르러 드디어 주님의 능력으로 선과 진리의 결합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날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날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제 안에서 저를 대신하여 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수고로 제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포기, 우리를 떠나는데 그때 더는 싸울 상대가 없으므로 싸움은 그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쉬의 상태, ‘짜바쓰’의 상태임을 배웠습니다. 오, 주님,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이 진리들을 꼭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힘써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